

제 三 장 三 日 三 日 三 日 三 日 (속)

『사 데』 교회

(법왕권시대후로재림운동까지) — 기원 一七九八—一八三三(三三三三)

「『사 데』 교회의 사자에게 이 말을 써서 부치라 니르대 하나님의 날복신과 날복별을 가진이가 가르사대 내가 너의 일을 아노니 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잇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너는 날째 어 그 남은바 죽게된것을 굳게하라 내가 보거니와 네 일이 나 하나님압해 온전하지못하였으니 그린고로 내가 어썬케 바닷으며 어썬케 드렸는지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날째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가리 이르리니 어느시에 내게 림할는지 내가 아지못하리라 그러나 『사 데』에 오이러 멧명이 잇어 그 옷을 더럽게 하지아니한지라 저희가 합당한자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합께 다니리라 이기는자는 이와가리 흰옷을 입을것시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받드시 호리 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아바지 압과 그 사자들 압해서 안다하리라 성신이 어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잇는자는 드를지어다」

이름의 뜻 〓 법왕권시대후의 교회는 한 새로운 경침을 당하게 되었다. 이시대 교회를 예언상에 『사 데』 교회라고 날캠는데 『사 데』 교회시대로부터 말세가 시작된다. 『사 데』 라는

이름에는 「남은 것」, 「줄거음의 왕」, 「줄거음의 노래」 라는 등의 의미가 잇는바 『두아 디라』 교회시대의 말기에 『윌리엄』 (Wyllie) 과 『루터』 (Luther) 와 가튼 큰 개혁운동자들이 이리나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동시에 성경도 차차 어러나라 방언으로 번역되어 만흔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 천주교회의 기반을 벗고 자유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날로 만하지게 되었는데 『사 데』 교회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신파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며 깃버노래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시대는 법왕권시대가 마치는 一七九八년으로부터 재림운동이 시작한 一八三三년까지이다.

책망과 권고 〓 「하나님의 날복신과 날복별을 가진이」가 이 교회를 책망하기를 「네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잇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나는 날째 어 그 남은바 죽게된것을 굳게하라 내가 보거니와 내일이 내 하나님압해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린고로 내가 어썬케 바닷으며 어썬케 드렸는지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날째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가리 이르리니 어느시에 내게 림할는지 아지못하리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실때에는 하나님의 날복신과 날복별을 가진신으로 나르나셨으니 이는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교회의 사자들을 인도하시고 교회로하여금 회생하여 부흥할수 잇도록 만드시려 하심이다.



도교침은하구면을경성대은가한말은

당시에 잇든 개혁한 신교가 얼마동안은 진리를 열심으로 상고하였으나 얼마후에는 그

경향이 점점 식어지고 도로

천주교회를 본바다 나갔나니 그러므로 책망하기를「네가

살았다하는 말이 있으니 실상은 죽었도다 너는 날째

그 남은바 죽게된것을 「깨닫라」 하섯으며「날째 아니하면

내가 도적가리 이르리라」 하신것이다. 우리는 이말씀을 불

쌍에 아모사람에게나 다 예수께서 도적가리 립하시게 될

것이 아니라 날째지안는자 회개치 안는자에게만 도적가리

립하시겠다는것을 주의할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에 잇지아니하며 그날이 도적파가리 너희게 립하지 못하

리라」 (살전五〇四)

그리고 이 말씀은 은언중에 재림시기가 립박한것과 재

림과별이 선전될것을 의미한것이니 一八三三년十一月十三일

에는 하늘별이 썩러지는 큰 징조가 잇어서 모든 사람이

마음에 말세가 이르렀다는것을 힘있게 느끼게 되고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 재림의 과별이 크게 선전되었다.

칭찬〇〇「사데」에 오이러 몇명이 잇어 그 옷을 더럽

게 하지아니한지라」 저희가 합당한자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합제 다니리라 이 교회시대에 몇명의 훌륭한 사람이 잇

었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위하여 가장 용맹있게 든든히 섰든자이다. 그들



황공제만기에금제한별특어되바인메예술사최이경성에한동대시후안

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리가 날리 전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그때로부터 선교

사업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었고 또한 성서공회가 조직되는 동시에 성경이 여러 나

라 방언으로 번역출판되게 된것이다.

허락〇〇「이기는자는 이와가리 흰옷을 입을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압과 그 사자들 압해서 안다하리라」 우리가 이

「사데」교회에게 주신 허락의 말씀에서 배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의나 무슨 고행(苦行)

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지못할 그사실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니 누구든지 그 선물을 바를때에 또한 그의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게 되는것이다.

그 옷을 입는 것뿐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을 위하여 만흔사람이 말할

수업은 필박을 바드며 심지어 죽기까지하였다. 「사데」교회시대의 다수한 신도는 이단

자라는 루명(陋名)을 섰지마는 예수께서는 하늘아버지와 천사들 압해서 그들을 안다

고 하실날이 잇을것이다. 「사데」교회가 이 보수보다 더 귀중히 역일 보수가 어대 또

잇겠는가?

『빌라델비아』교회 (재림운동의초기—一八三三—一八四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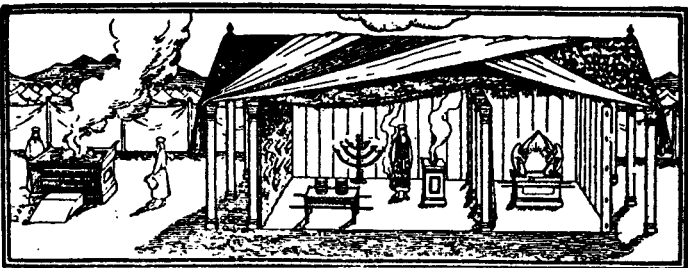
「『빌라델비아』교회의 사자에게 이말을 써서 부치라 이르대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
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다들사람이 입고 다드면 열사람이 업는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들 아노니 내가 여간한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불지어다 네압해 열린 문을 세우매 능히 다들사람이 업스리라 불지어다 『사단』의 회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그러치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자를 내게 주어 저희로 하여금 와서 네 발압해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시험을 랑하는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참는도를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을 당할새를 면하게 하리니 이새가 장차 온세상에 림하야 썩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 하리라 내가 속히 림하리니 네게 잇는것을 굳게잡아 아모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동이 되게하리니 저가 반드시 다 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이름을 그 우에 쓰리니 이 성은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내 새 이름도 그우에 쓰리라 성신이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잇는자는 드를지어다」

이름의뜻 『빌라델비아』 교회시대는 재림운동이 시작하는 一八三三년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늘지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시작한 一八四四년까지인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우애」(友愛)라는것이다. 당시 재림의별을 전하는자들의 형편과 정신은 그 이름에 충분히 표시되었다. 저희는 각교회에서 나올새에 당파적관념과 당파적감정을 버리고 일심단합하여 각교회에게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경보를 전하는동시에 이것은 믿는자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였다. 저희는 리과심과 탐욕을 다 버리고 헌신봉사의 정신을 품었다. 하나님의 신이 모든 독실한 신자들과 함께하시고 만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운동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당시 독실한 신자들

의 경험한 심절한 마음의 감동과 모든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회생과 성신으로 말미암는 화평과 희락과 또는 신자들사이에 잇는 순결하고 열렬한 사랑을 충분히 헤아릴수 업는것이다. 이 운동에 참가하였든 사람들은 다 당시의 그 신성하고 깃든 상태를 말로 형언할수 업스를 스스로 인정하는바이다.

칭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다들 사람이 업고 다드면 열사람이 업는이」가 이 교회를 칭찬하기를 「내가 네행위를 아노니 내가 여간한 힘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하였다. 여기 말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다들사람이 업고 다드면 열사람이 업는이」는 곧 그리스도시니 오직 그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의 보좌가 잇는지성소에 문을 열고 드러가실 권리가 잇는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지사 왕이 되실것에 대하여는 이미 그가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 『가부니엘』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 발표한바이니 닐렸은대 「저가 크게 되고 지극히 높은이의 아들이라 닐카를것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리니 세세로 『야곱』의 집에 왕이 되사 그 나라이 부궁하리라」(눅一〇卅二、卅三)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좌가 하늘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안에 잇지마는 장차 이세상에 그 새 『예루살렘』도성이 림하게 될것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영원부궁도록 통치하실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와 그의 위는 세계의 최고권력을 의미하는것이니 오늘날 렬국의 왕위와 가문의미로 해석할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말씀과 성막의 말씀

맛기도 하신다. 이 권능은 세상에 있는 아모 사람에게도 있는것 아니오 오직 그에게만 속한것이다.

이러듯 하늘성소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대 「내가 여간한 힘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다. 이 말씀은 당시 재림 신자들의 형편을 말함이니 그들은 저이의 여간한 힘을 가지고 도 성경을 부조린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지키어 재림하실 구주를 맛기위하야 성심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그들이 성소문제에 관한 오해로 저의 소망하든바가 허지로 도라가는듯한 경우를 당하였으나 오이러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나니 오직 하나님의 바른지시를 밋기위하야 간절히 기도하였다.

열린문 『볼지어다 네 압해 열린문을 세우매 능히 다들 사람이 업스리라』 이 열린문은 곳 하늘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문이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든 성전례식에는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드러가 봉사의 일을 행하되 오직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드러가 성막을 정결하는 레식을 행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송천하신 다음에는 옛날에 있던 그 표상적

례식대신에 자신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사 하늘에서 성소의 일을 행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명가운데는 예수께서 하를지성소에 드러가시는것에 관한 경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인바 二천三백주야의 뜻되는 一八四四년부터 있을일인데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하를 대제사장이 되사 성소를 정결하는일 곳 조사심판을 행하실것이다. (다니엘연구 八章九장참고)

一八四四년에 열린 지성소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세계에 비치일때까지 열려있을 것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시대에는 복음이 놀라운 형세로 전파되었나니 미국과 구라파 각국과 아세아에 있는 여러 전도자들이 一八四四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것을 크게 전파하였다. 그리하야 수다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그 생애를 온전히 변화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리는 그리스도께서 一八四四년에 재림하시지 아니하매 만흔 무리는 실망하였다. 그러나 오이러 독실히 밋는자들은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한결과 하를지성소의 문이 열린것은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표시인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야 이 조사심판이 뜻난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것을 알었다.

위로와 권고 『볼지어다』 『사단』의 회가운데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그러치 아니하고 거짓말하는자를 네게 주어 저희로 하여금 와서 네 발압해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참는도를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함을 당할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새가 장차 온세상에 림하야 싸에 거하는 사람을 시함하리라』 이 시대에 자칭 하나님의 참백성이로라 하는자들 가운데 오이러 거짓말을 하

고 위선(僞善)을 행하는 가증한자들이 잇었으니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회에 속한자라 하셨다. 그러한 위선자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주께서 립하실때에 그가 어셔한사람을 놓히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장차 큰 시험이 이를것인데 하나님의 참도리를 지키는자는 그 시험을 무사히 지낼수가 잇을것이니 예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것이다. 닐렷으대 『성도의 인내가 여겨 보이니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과 예수님의 도리를 지키는자니라』 (묵十四〇十二) 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주의 속히 립하실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것이잇나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동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이 기동은 이전과 가리 『사단』에게 파피를 당하지 아니할것이오 영원토록 설것이니 「저가 반드시 다시 나가지 아니할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조사심판의시대 — 귀원一八四四년으로 예수재림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말을 써서 부치라 니르대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거시오 하나님의 창조외 근본이 되신이가 가르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덕음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혹 차든지 혹 덕음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야 덕음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야 내치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야 부족한것이 업다하나

네 끈고한것과 가련한것과 간난한것과 눈먼것과 벌거벗은것을 아지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련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안케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하라 내가 사랑하는자는 멧치든지 책망하야 징계하노니 그런고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불지이다 내가 문압해 서서 두다리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듯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드러가 저로 더부러 먹고 저는 나로 더부러 먹으리라 이기는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안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김을 잇고 아까지 보좌에 함께 안진것과 가리하리라 성신이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슴을 귀잇는자는 드를지어다

이들의 뜻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날급교회 가운데서 맨마지막 교회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경들이 마칠것인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이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백성일진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분자가 될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 『예루살렘』으로 다려가실것이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은 곳 「백성을 심판한다」는것이다. 이 『라오디게아』의 의미와 가리 이 교회시대동안에 하늘성전에서는 조사심판이 진행되는중이다. 이 심판은 우에도 말한바와가리 一八四四년 곳 二천三백주야의 쓰레 시작되어가지고 예수께서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실때까지 계속될것이다.

『신실하고 참된증거시오 하나님의 창조외 근본이 되신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덕음지도 아니하도다 내

가 혹 차든지 혹 더웁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야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야 내치리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야 부족한것이 없다하나 네 끈고한것과 가련한것과 간난한것과 눈먼것과 빌거벗은것을 아지못하도다」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자기를 진실하고 참된것으로 나타내셨다. 이 교회가 조사심판시대에 잇는 교회이니 진실하고 참된것처럼 필요한것은 업는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법정에서 불리워질때에 우리의 이진 모든 승리를 하나도 남김업시 증거하실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부족도 숨김업시 증거하실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책망하사 우리에게 대한 승리의 보고재료가 만케하시려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잇는 마지막 교회인만큼 다른 여섯교회보다 더욱 큰비출 바닷나니 진리를 깨닫기에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진리를 열심으로 연구하는동시에 헌신적 노력이 잇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미지근하야 더웁지도 안코 차지도 안라. 이것은 이 교회의 큰 죄악이다. 랭당 하고 등한하고 자족하는 생각을 큰 죄파라고는 할수업슬듯 하지마는 실상 이것은 우리 들 크게 망치는 길로 인도한다. 미지근한것보다는 차라리 찬편이 나을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스스로 찬출을 깨닫는때에는 자기의 부족을 뉘웃고 더욱 열심잇고 경건한 생애를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할것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지근하야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자는 「내 입에서 토하야 내치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 마지막 교회의 잇는자들의 길히 명심할바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야 부족한것이 없다」 하야 스스로 교만 한 생각을 가진다. 저희가 실상은 「끈고하고 가련하고 간난」 하지마는 자신은 그러치 안은줄로 안다. 우리가 몸에 걸칠것이 업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야보자. 그리고 그가 눈까지 멀어 압을보지못하고 혹압한길을 더듬어 나아간다고 하자. 그러면 그의 가련한 정경이 얼마나하랴? 그러나 그 당자는 그런줄을 깨닫지못한다. 또한 개인 에 드러누은 슬취한사람이 자기가 그러듯 더러운곳에 누어잇건마는 자신은 아조 훌륭한 자리에 누어 잇는줄로 안다. 그는 정신이 너무나 흐리어 자기의 참혹한 형편을 스스로 깨닫지못한다. 그 정경이 얼마나 가련하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눈에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오 곧 신령적 상태이다. 이 교회는 신령적으로 그러한 참혹한 처지에 빠져잇다. 저희에게는 신령적 보배가 잇건마는 그것을 사용치 아니한다. 저희는 성경을 보고 그 의미를 리해한다. 그러하건마는 저 회는 간난하게도 그 마음가운데 신앙적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희망과 자비와 인내가 업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의옷도 아니입었고 그 마음을 열여줄 성신도 받지아니하였다. 과연 저희는 눈이 먼것만마는 눈먼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래지아니하야 주를 영접할 이 교회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가련하고 참혹한것이다.

권고 〓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도 런던한 글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하신다.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싸하두고 선을 행하야 아름다운 행실로 부요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견달것가트

섯다. 과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주시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럼으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가 하늘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드리오 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늘에 영화로운 전이 잊으며 거기에서 만만천사의 경배를 맞지 마는 오이러 그가 우리 마음가운데 드리오시기를 원하신다. 그가 우리의 사랑을 맞고 저하시니 우리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 구주로 하여금 드리오시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우리에게도 드리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실을 다 주관하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여러번 실수하고 또한 여러번 실패를 당하였을 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드리오와 거하시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허락 ||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는 이미 승리를 얻었고 종차로 더 승리를 얻을 것이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귀한 허락을 주셨나니 닐렸으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김을 얻고 아바지 보좌에 함께 앉진 것 과 가리하리라」 하엿다. 이는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견대시고 아바지의 보좌를 얻는 것과 가리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주시마 하신 것이다. 세상 마지막에 잇어서 여러가지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만히 당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느 바와 같은 하늘 보좌를 잇는 것은 과연 갑가는 상급도 되거나 이기는 자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다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잇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련단을 이기고 미 들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 삼

면 우리는 불에 련단한 금과가리 가치잇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또 가르사대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안케하라」 하섯다. 흰옷은 곳 의의옷을 가리침이니 이는 더러운 옷과 가튼 우리의 의가 아니오 그리스도의 영접하기 위하여 예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질을 바리고 예수님의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가르사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하라」 하섯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형제 화목과 사랑이 없스면 눈이 어두워 원시치 못한다」 하엿다.



심리 '두울문음머리우서에도스리그

예수께서 성신을 기쁨듯듯 바드신 것은 다름아니라 그가 눈먼자를 보게하기 위하심이었다. 성신은 곳 안약인바 예수께서 이 안약을 우리에게 바르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하게 하신다.

그리고 十九절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는 멧치든지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

